

# 1995年 世界經濟展望

金 道 薰

〈産業研究院 動向分析室長・經博〉

## 1. 머 리 말

세계경제의 회복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내년에는 세계경제가 본격적인 호황을 보이면서 꽤 속으로 향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초까지 미국 경제만이 외롭게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올랐을 뿐, 일본 경제와 EU경제가 모두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나 마침내 이들 2국들도 회복궤도에 합류하고 있는 것이다. 금년말을 고비로 모든 선진국들이 정상적인 경기회복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무역도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들도 수출증대와 함께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작년까지 1%대의 저성장 추세를 보이며 장기적인 경기침체상을 보였던 세계경제는 금년 상반기를 고비로 회복국면에 들어서 금년에는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내년에 더욱 활발해져 3.4%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경제가 금년 하반기를 전후하여 바야흐로 본격적인 성장궤도로 접어들고 있고 내년에는 드디어 호황국면으로 진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경제의 성장·무역 여건이 크게 좋아지고 있는 반면 금년 상반기까지 우리 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던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의 이른바 「신 3저」 현상은 금년 중반을 고비로 서서히 반전되고 있다. 우선 미국 연준이 미국경제의 경기상승이 지

속되자 물가상승압력을 우려하여 연초부터 몇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면서 저금리기조는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물론 아직도 경기회복을 부추겨야 하는 일본과 독일이 한동안 저금리를 유지하겠지만 금년 말을 고비로 이들 국가들도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것이다. 또한 세계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궤도에 들어서면서 국제유가도 그동안의 하향안정기조에서 벗어나 상승기조를 보일 전망이다. 나아가 향후 미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협상의 결과에 따라서는 엔高/저달러의 추세도 짧은 기간이나마 역전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이러한 3대 국제거시변수들의 역전현상은 이들 수준이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마디로 세계경제여건은 매우 좋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순항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배에 올라 더욱 빨리 나아갈 때이다.

## 2. 주요 국별·지역별 성장

### 미 국

미국경제는 작년 중 3%의 성장률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1/4분기 3.3% 성장(전기비 연율)에 이어 2/4분기에도 4.1%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이렇게 미국경제의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정부지출이 다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설비투자와 민간주택투자가 높은 신장세를 나타내었고 GDP의 약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가계

〈표-1〉 세계경제 성장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

	1993	1994		1995	
		上半期	下半期		
世界	1.4	2.5	2.8	2.7	3.4
先進國	1.4	2.6	2.7	2.6	2.8
美國	3.0	4.0	3.4	3.7	3.0
日本	0.1	0.6	1.2	0.9	2.8
EU	-0.2	1.5	1.9	1.7	2.5
開途國	4.3	4.1	4.9	4.5	5.6
舊共產圈	-1.6	-2.3	-1.4	-1.8	1.1

소비지출도 경기회복에 따른 소득증가로 건설한 증가를 보였기 때문이다. 미연준의 잇달은 금리인상의 여파로 3/4분기부터는 다소 성장세가 꺾이고 있으나 3% 내외의 성장률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미국경제의 성장은 과거와는 달리 정부의 재정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물가안정과 낮은 금리하에서 민간소비 및 기업투자의 확대가 성장의 원동력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더욱 견실한 성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경제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금리인상의 여파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이나 내년까지 여전히 높은 3% 수준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미국경제의 성장폭은 민간부분의 소비와 기업투자의 지속적인 확대가 가능한가에 달려 있으나 기업부분의 투자활동은 상당기간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속된 높은 성장과 서비스산업 부문의 임금인상요인 등으로 물가상승의 재연을 우려하고 있는 미연준이 한두차례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기업 설비 투자가 다소 위축될 우려도 있다.

### 일 본

일본경제는 지난해 80년대 이후 최악의 저조한 성장을 나타내었으나 올해 들어와 민간소비가 완만하나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경기저점에서 벗어나고 있다. 상반기 중 일본경제는 지난해의 최악수준을 벗어난 0.6%의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기업의 설비투자가 아직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엔고의 영향도 있어 경기회복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경제도 수출이 꾸준한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다 금년 6~8월을 고비로 광공업생산, 기계류수주, 건설공사수주, 신차구입 등의 각종 지표들이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경기회복의 궤도를 타기 시작하였고, 내년에는 세계경기회복에 따른 수출호조와 민간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2.8%의 실질경제성장을 달성, 본격 회복국면을 시현할 것이다. 내년에는 특히 대내외의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기업의 재조정도 어느 정도 완료되면서 기업의 투자심리도 크게 회복, 경기침체후 처음으로 기업설비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발표된 일본개발은행 등의 설비투자 계획조사에 의하면 일본기업들이 내년부터는 설비투자를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U

EU경제는 지난해 0.2%의 성장감퇴를 나타내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독일경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 지난 2/4분기 중에는 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 등 주요 EU 국가들의 산업생산이 전기대비 2%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어 EU경제의 회복추세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EU경제의 회복은 특히 경제규모가 큰 독일과 프랑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작년 1% 내외의 성장감퇴를 겪었던 이들 국가들을 상반기부터 민간소비회복과 수출호조로 산업활동이 활기를 띠에 따라 상반기 중 1.5%대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U경제의 회복은 미국 및 아시아 국가들의 경기회복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각국의 지속적인 금리인하조치와 안정적인 물가수준으로 기업의 투자심리도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EU경제는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어 금년 1.7%의 성장을 달성한 후, 내년에는 회복속도가 더욱 빨라져 2.5%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전망을 가능케 하는 요인은 주요 교역상대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호조와 향후 낙관적인 경기전망과 투자여건의 호전에 힘입은 기업설비투자의 호전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

별로는 통독 이후 오랜 침체를 겪어왔던 독일경제가 동독지역의 활발한 생산활동과 물가안정, 금리인하 등에 힘입어 회복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영국경제는 내년에는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개도국

지난해 개도국경제는 선진국경기의 전반적인 부진의 영향에다가 원유를 비롯한 1차상품가격의 하락 등으로 전년수준과 비슷한 4%대의 성장에 머물렀다. 이러한 양상은 금년 상반기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경기의 회복과 원유를 비롯한 1차상품가격의 회복으로 점차 경기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지역별로는 경기의 명암의 크게 엇갈리고 있다. 지속적인 공업화정책 추진과 지역내 무역의 확대, 엔고와 미국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아시아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높은 성장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인플레이 억제를 위한 긴축정책과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중남미는 지난해보다 경기가 악화되었으며, 연초의 국제원유가 약세로 부진을 면치 못하였던 중동지역의 경제는 4월 이후의 국제유가 상승으로 점차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선진국경제의 회복이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의존하고 있는 개도국경제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국면에 진입, 하반기의 4.9%의 성장에 이어 내년에는 지난 몇년간의 4%대 성장을 넘어선 5.6%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7%대의 비교적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ASEAN 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경기의 회복에 따른 수출호조와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확대, 소득증가에 의한 소비수요 증가로 하반기와 내년에도 7%를 넘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걸프전과 국제원유가의 약세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던 중동지역은 세계경기 회복에 따라 국제원유가격이 상승하면서 하반기부터 경기가 호전되기 시작, 내년에는 4.5%로 성장세가 높아질 것 같다. 중남미경제는 하반기에도 경기부진상태가 지속

될 것이나 내년에는 정치안정에 따른 경제개혁정책의 활성화, 수입자유화 확대 등 외국인 투자환경의 개선과 인근국가간 시장통합, 선진국경제 회복에 따른 공산품 수출의 확대 등으로 90년대에 들어 가장 높은 4.6%의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舊공산권

舊공산권경제는 중국경제가 상반기 중 지난해에 이어 두자리 수의 고성장을 지속하였으며,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경기위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러시아경제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정책과 정치적 불안 등으로 생산활동이 오히려 크게 위축되었다. 동구국가들은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이 순조로이 이루어진 폴란드 등 일부국가들에서 생산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舊공산권 경제는 내년까지 러시아경제의 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성장감퇴폭이 둔화되는 가운데 중국경제의 고성장 지속과 동구권경제의 플러스 성장 진입에 힘입어 내년에는 시장경제로의 진입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경제는 인플레이를 우려한 중앙정부의 수요인정책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개방의 성공적인 추진과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기업경쟁력의 향상 등에 힘입어 내년까지 9% 정도의 높은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구권경제는 각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투자 확대, 사유화기업 및 합작기업 등 민간부문 활동 증대, 서방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호조 등으로 회복속도가 점차 빨라져 내년에는 3%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경제는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긴축기조 등으로 내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다.

## 3. 국 제 무 역

금년 상반기 중 세계 교역(금액기준)은 작년 상반기에 비해 5.4% 증가하였다. 이처럼 금년 상반기 중 국제 교역이 호조를 보인 것은 작년 상반기 세계 교역이 상당히 부진한 탓도 있지만,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수입이 호조를 보였고 아시아를

〈표-2〉 세계무역 전망(수입금액 기준)

(단위: %)

	1993	1994		1995	
		上半期	下半期		
世界 (物量基準) <sup>1)</sup>	1.0 (2.4)	5.4 (-)	7.0 (-)	6.2 (6.8)	7.6 (6.3)
先進國	-1.3	4.2	6.1	5.2	6.3
開途國 <sup>2)</sup>	8.0	9.4	9.6	9.5	11.5

주: 1) IMF의 1994년 9월 전망치.

2) 舊공산권 포함.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도 순조로왔기 때문이다.

금년 하반기와 내년의 세계교역신장률은 상반기보다 높은 7%와 7.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과 아시아의 경기호조에다 유럽지역의 경기회복 등으로 그동안 부진하였던 유럽의 교역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NAFTA, APEC의 활성화와 UR협상 타결의 영향 등도 세계교역신장률을 상승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금년 상반기 중 4.2%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선진국의 수입은 올 하반기와 내년에 6.1%와 6.3%의 비교적 높은 신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가계의 소비증대와 함께 기업들의 통신관련투자가 계속되어 앞으로도 높은 수입증가율

을 기록할 전망이다. EU의 수입도 역내 회원국의 내수증대와 수출경기회복에 따른 원자재 수입증가 등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금년 하반기 이후 내수가 점차 회복되고 엔고의 수입유발효과 여파, 미국의 대일시장 개방 압력 등으로 수입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의 8%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9.4% 증가한 개도국의 수입도 올 하반기 9.5%, 내년 11.5%의 높은 신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ASEAN·중국 등은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따른 자본재 수요증대와 소비확대에 따른 소비재 수입수요의 증대로 계속 높은 수입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다. 중남미도 중간재, 자본재, 내구소비재 등의 수요 확대와 지속적인 경제개방화 등으로 향후 높은 수입신장세가 예상된다.

#### 4. 국제금리·환율·유가

국제금리는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과거보다 낮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내년 중반을 고비로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경제가 금년 상반기 중 높은 경제성장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인



〈표-3〉 국제금리·환율·유가 전망

(단위: 연율, %, 달러/배럴)

	1994				1995			
	1	2	3	4	1	2	3	4
美國 公正割引率	3.00	3.50	4.00	4.00	4.50	4.50	5.00	5.00
엔/달러	102.8	98.9	98.5	97.5	97.5	96.5	95.0	94.0
WTI	14.8	17.8	18.9	19.2	18.3	18.0	19.1	19.2

주: 금리·환율은 기말기준, 유가는 기간평균임.

플레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민간소비 및 투자의 증가로 자금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 연준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공급리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은행은 내년 초까지 단기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시킬 것이나, 내년 중반부터는 소폭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금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내년부터는 물가상승의 우려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은행은 금년 말에도 경기회복을 부추기기 위해 공정한인율을 추가 인하할 것이나 내년부터는 인상하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달러화는 금년 말부터 현 수준보다 소폭이나마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나 내년 중반을 고비로 다시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말부터 달러화가 여타 통화들에 대해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는 것은 현재 엔화 가치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 금년 말부터 조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엔고의 급격한 진행은 일본이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등폭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역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미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대폭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에 일본경기가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미국경기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중반부터는 엔/달러 환율이 다시 하락세(엔고)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하반기의 내년 국제석유수급이 더욱 타이트해지면서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은 금년 상

반기 배럴당 16.3달러에서 하반기와 내년에 각각 배럴당 19.2달러와 18.6달러로 상승하고, 두바이가 격역시 금년 상반기 배럴당 13.8달러에서 하반기와 내년에 각각 배럴당 16.0달러와 15.5달러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OPEC의 생산량이 현재 수준에서 유지되고 舊소련과 미국, 중국 등도 설비노후화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전망이다인 반면, 세계경기 회복으로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내년에는 세계경제의 범세계화가 더욱 촉진되는 가운데 세계경제는 순조로운 성장추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세계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국제무역도 높은 신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WTO가 설립됨으로써 무역자유화의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들도 시장개방의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이제 상품의 이동을 가로막는 장벽은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탈냉전과 더불어 구공산권 국가들도 모두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해 오고 있어 세계는 무역에 관한 한 지구촌화가 확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가 호황을 보이고 세계무역환경도 크게 개선된다는 점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수출증대의 좋은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특히 엔고의 영향이 지속되는 동안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좋은 기회로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마케팅활동을 강화하여 수출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하겠다.

반면에 세계경제의 중요한 거시정책변수들인 환율·금리·유가 등은 낙관을 불허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환차손이 나지 않도록 외환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국제적인 저금리가 지속될 때를 놓치지 않고 해외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한 금융자유화, 외환자유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제유가가 더 오르기 전에 석유비축물량에 대한 점검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